

16~18세기 함안조씨 문중의 정주(定住) 아이콘

- 남원시 봉황대(鳳凰臺)·정(亭) -

김종수*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봉황정 중건과 탈문중화 국면 |
| 2. 울정(栗亭) 조종례(趙從禮)의
남원 이주 | 5. 맺음말
참고문헌 |
| 3. 제학공파(提學公派)의 정주(定住)
아이콘화 | <Abstract> |

국문초록

남원시 대산면 죽곡마을에 소재한 봉황대는 유서 깊은 천혜의 자연적 상관물로, 특히 울음바위[鳴巖] 전설로 인하여 고려 말엽부터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조선시대 때 대곡방에 소속되었던 봉황대에 새겨진 암각화는 이 일대가 민초들이 생업을 유지하기에 매우 적합한 터전임을 시사해 준다. 차후 고려말에서 19세기 이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봉황대는 이곳의 명암 전설이 발휘한 신비로운 예지력으로 인해 죽곡동의 영험한 명소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던 차에 경상우도의 함양에서 죽곡동으로 이주한 함안조씨 제학공파의 파조인 울정 조종례와 그 후손들에 의해서, 봉황대와 명암은 특정한 문중과 결속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조종례를 위시한 이 일문의 문과·생원·진사시 합격 사실을 명암이 연속적으로 묵시해 보임으로써, 제학공파 일문의 성공적인 정착을 상징해 주는 아이콘으로 변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신재 조림이 창작한

* 세명대학교 교양대 강사, E-mail: welcome-to@naver.com

<명암운>에 해서 김인후가 차운시로 화답한 이래로, 후손들이 지은 일련의 차운시들은 이 문중의 대외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자를 창건한 주체를 둘러싼 의문 또한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19세기 이후로 제학공파 후손들의 관직 진출이 뜸해지면서, 봉황대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게 된다. 또한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건·중수되었던 봉황정이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도 봉황대 전설의 퇴각이라는 추이와 궤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1970년도에 이르러 봉황정을 모태로 하여 결성된 계모입과 이 조직의 주도적인 노력에 힘입어 발간된 『봉황대시집』은, 바야흐로 봉황정이 탈문중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주민 공동의 문화적 공간으로 탈태하였음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신호였다.

주제어 : 봉황대, 봉황정, 명암 전설, 함안조씨 제학공파, 아이콘, 계모입, 봉황대시집

1. 머리말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죽곡마을의 동구(洞口)에 위치한 봉황대(鳳凰臺)는, 이 지역 전래의 구비전승과 인문적 문화가 결속되는 계기를 제공해 준 천혜의 자연적 장관물이다. 특히 소규모 바위산인 봉황대에 터한 명암(鳴巖)과 결부된 유래 깊은 전설(傳說)로 인하여, 마침내 봉황대는 경상우도(慶尙右道)의 함양(咸陽)에서 이주해 온 함안조씨(咸安趙氏) 제학공파(提學公派) 일문(一門)의 성공적인 정주(定住)를 상징해 주는 아이콘으로 변신했던 사실이 주목된다. 차후 봉황대는 그 아래 터에 건립된 봉황정(鳳凰亭)에 연원한 계(契) 조직의 모태로 작용하면서, 특정한 문중의 상징물을 탈피해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점으로 면모 일신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지금까지 봉황대와 그 부속물인 명암·봉황정 등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조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이번 지면을 통해서 남원시 북부의 명소로 자리 잡은 봉황대와 명암·봉황정이 감당해 온 역사적 이면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대체로 그 주된 방향은 첫째, 죽곡동의 봉황대·명암이 함안조씨 제학공파와 결속되면서 이 문중의 아이콘으로 변신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규명해 내는 작업으로 조준될 것이다. 둘째, 차후 구비전승의 원천이었던 명암 전설에서 봉황정으로 관심의 초점이 전환된 이면사와 더불어, 또 이 정자가 모

태가 된 계모임에 내포된 문화사적 의미를 아울러 진단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봉황대·명암 전설의 부상과 퇴각, 그리고 봉황정의 계 조직과 시문집의 발간으로 이어졌던 내용들을 아우르는 차원에서의 역사적·문화적 콘텐츠들을 새롭게 발굴해 내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기의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부분적으로 참조하는 가운데, 『함안조씨언행록(咸安趙氏言行錄)』과 봉황정 내의 다양한 판상(板上) 작품들의 활용을 통해서 일천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전면적인 수준에서 재구성해 낼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봉황대·명암 및 봉황정과 관련된 기록들을 남긴 사대부들의 문집(文集)과 남원의 읍지류(邑誌類)와 같은 문헌 자료들도 적극 원용함으로써, 철저히 고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한 실증적인 연구를 지향하고자 한다. 또한 금번 논의에서는 이른바 ‘정자(亭子)의 사회사(社會史)’¹⁾로 명명합직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건물의 평면·설계도에 기초한 기존 건축학·조경학적 연구가 수반하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기실 정자의 사회사로 지칭되는 인문·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이란, 다양한 부류의 고문헌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려는 텍스트 유인 전략과도 긴밀히 호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번의 논의가 유서 깊은 연원을 간직한 봉황대와 그 부속물들에 대상으로 한 총체적인 재조명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도출함과 동시에, 또한 이 같은 역사적·문화적 콘텐츠가 남원시 북부 권역에서의 유익한 인문학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결실로 이어지길 아울러 기대해 본다.

2. 율정(栗亭) 조종례(趙從禮)의 남원 이주

율정 조종례(1376~?)는 고려(高麗) 말엽의 충신이자, 사후에 범(凡) 덕곡공파의 파조로 옹립된 덕곡(德谷) 조승숙(趙承肅, 1357~1417)의 셋째 아들이다. 그런 그가 기존의 세거지인 함양의 덕곡촌(德谷村)을 벗어나서 호남의 남원부(南原府)로 전격적인 이주를 단행한 일이란, 범 덕곡공파의 발전적 분화와 성씨의 분포도의 확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조종례가 몇 세대에

1) 봉황정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인 접근법을 지칭한다. 즉, 재실(齋室)에 전시된 다양한 기문(記文)과 판상시(板上詩)·액호(額號) 등에 담지된 사람 냄새 가득한 이면사를 탐구해 내기 위한 인문·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정자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김중수, 『재실의 사회사』, 민속원, 2019, 3~4쪽.

이주를 시도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에 조종례가 남원으로 이주한 배경으로는 그의 처부(妻父)인 이동미(李東美)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정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이는 차후 월계(月溪) 조희문(趙希文, 1527~1578)의 9대손인 조환국(趙煥國)이 지은 <봉황대기(鳳凰臺記)>²⁾ 중의 아래 기록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입증이 가능하다.

“그 바위가 울기로는, 고려 말엽[麗季]에 외가의 선조[外先]이신 이씨(李氏) 판서공(判書公)[이동미]이 과거에 급제하셨을 적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³⁾

위의 인용문은 봉황대에 터한 명암이 과경(科慶), 곧 과거(科擧) 합격이라는 경사와 맞물려서 울음소리를 내곤 하였던 사례들을 열거해 보인 대목의 첫 장면에 해당한다. 인용문 중에서 ‘외선(外先)’ 운운한 대목은 바로 고려조(高麗朝)의 판서 이동미가 조종례의 장인임을 나타낸 표현이다. 그런 점에서 조종례는 혼례식을 치른 20세를 전후로 한 시기에 처가인 “남원부(南原府) 서쪽 월계산(月溪山) 자락의 죽곡동(竹谷洞)으로 이거(移居)”를 단행한 듯하고,⁴⁾ 또한 새로 옮긴 죽곡동에서 문과(文科) 급제(及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기실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고 처가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하는 전통적 혼인 풍속을 지칭하는 이른바 남귀여가(男歸女家)는 조선 중기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이는 각종 읍지류에 수록된 <성씨(姓氏)>조를 통해서도 누차 방증되는 바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간행된 『남원읍지(南原邑誌)』의 <방리(坊里)> 항목에는 죽곡마을이 소속되어 있는 대곡방(大谷坊)의 호수(戶數)와 남녀 인구 현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음에 잠시 유의해 본다.

“(대곡방은) 궁문(宮門)에서 25리(里) 즈음에 있으니, 157호(戶)가 호적에 편성되어 있고, 남자는 326명[口]이며, 여자는 279명이다.”⁵⁾

2) 趙煥國, 1845, <鳳凰臺記>(鳳凰亭 所藏本), “崇禎四乙巳孟秋上澣, 月溪九代孫 煥國.”

3) 趙煥國, <鳳凰臺記>, “其鳴也, 始於麗季, 外先李氏判書公, 登第時.”

4) 咸安趙氏世譜編輯委員會(가칭), 1963, 『咸安趙氏世譜』 卷1, 『咸安趙氏言行錄·第二編』, <提學公諱從禮>, 咸陽教授亭活印, 6쪽, “公移居于南原府西月溪山下竹谷洞.” 이하에서는 『함안조씨세보』는 생략하고 『함안조씨언행록』을 독립된 텍스트로 표기한다. 또한 함안조씨세보편집위원회는 ‘함안조씨세보위’로 약칭하며, 쪽수 표시는 필자가 『함안조씨언행록』에 한정해서 임의로 매긴 것이다.

5) 南原郡(朝鮮) 編, 1787, 『南原邑誌』(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필사본, 奎17401), 『坊里』, <大谷坊>, 2a. “大谷坊: 自宮門二十五里, 編戶一百五十七戶, 男三百二十六口, 女二

18세기 후반 무렵의 남원부는 총 47개 방(坊)으로 구성된 행정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도합 “편호(編戶)가 11,107호(戶)에 남자는 23,105명[口]이요, 여자는 19,905명”으로 이뤄진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다.⁶⁾ 그렇다면 당시 총 605명의 인구와 157호의 호구(戶口) 수치를 보여준 대곡방의 경우, 궁벽진 산중에 자리한 탓인지 43,010명의 인구와 1,117호에 이르는 호구 수를 유지한 남원부의 평균치를 훨씬 밀도는 밀도를 형성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문의 경우, “예로부터 인결은 신령한 땅 기운에 달려 있다고 했으니”라고 읍조린 바대로,⁷⁾ 그가 호흡했던 16세기 중·후반 이전 시기에도 대곡방의 자연환경은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 때의 유적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3호로 지정된 ‘대곡리암각화(大谷里岩刻畵)’의 존재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대곡리암각화와 관련해서 직선적 표현이 선호되는 변한내륙형의 검파형 암각화로 진단하는 가운데, 청동기시대 농경의례 과정에 출현한 것이라는 역사학계의 연구 결과도 참고가 된다.⁸⁾ 청동기시대에 농경의례가 행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죽곡동 일대가 선사(先史) 시대 때부터 매우 수승한 자연환경을 갖춘 거주 공간이었음을 암시해 준다.

여하간 이처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죽곡동에서 과거 공부에 전념한 끝에, 조종례는 26세 되던 1402년(태종 2)에 당당히 문과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조종례가 이곳의 유서 깊은 자연적 상관물인 봉황대와 계류되는 가운데, 울음바위[鳴巖] ‘전설[說]’⁹⁾ 혹은 ‘고설(古說)’¹⁰⁾의 실체를 직접 겪은 당사자로 기록되게 했던 것도 1402년에 치르진 식년시(式年試)와 직결되어 있었음이 주목된다. 일단, 이 지점에서 『함안조씨세보(咸安趙氏世譜)』 권1에 편집된 『함안조씨언행록(咸安趙氏言行錄)』의 <조종례>조에 기록된 봉황대 전설의 얼개를 살펴보기로 한다.

百七十九口.” <旱田·水田>의 경우, 1787년[丁未]의 결수(結數)를 기록하였기에, 읍지가 작성된 시기를 짐작케 해준다.

6) 南原郡 編, 『南原邑誌』, 『坊里』, <大谷坊>, 3a. “合編戶一萬一千一百七戶, 男二萬三千一百五口, 女一萬九千九百五口. 丙午籍.” ‘병오적’은 “병오년[丙午]의 호적[籍]”을 의미하나, 연대를 특정하기 어렵다.

7) 趙希文, 연도 미상, <鳳凰臺記>(『龍城誌』收錄本), “修撰趙希文詩, 人傑從來在地靈.”

8) 전호태, 2017, 『한국의 검파형 암각화와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역사와 경계』 15, 부산경남사학회, 105쪽.

9) 趙煥國, <鳳凰臺記>, “鳴巖之說, 蓋古矣.”

10) 黃留周, 1977, <鳳凰臺記>(鳳凰亭 所藏本), “鳴巖, 蓋古說, 在昔河西金公月溪趙公, 與我先祖雲溪公, 記述繼在.”

“거주하던 동네의 동쪽에는 기이한 모습으로 생긴 바위들이 계곡 주변에 여러 길이나 험악하게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정면에 큰 글자로 ‘봉황대(鳳凰臺)’라 쓰이어 있었다. 글자체가 하도 기이하고 오래 되었던 탓에, 어느 시기에 새겨진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동네에서 대대로 전해져 오기를, ‘장차 마을에 경사(慶事)가 생기면, 문득 바위가 소리 내어 울게 될 것이므로, 이르기를, ‘명암(鳴巖)[울음바위·울바위]’이라고들 한다.’고들 하였다.”¹¹⁾

윗글 속에는 봉황대가 자리 잡은 위치와 기원 미상(未詳)의 글자체, 그리고 예언적 영험성을 발휘하는 명암 전설의 일개가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다. 또한 위의 인용문은 봉황대의 명암 전설을 기록으로 남긴 문헌들 가운데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헌 자료적 성격을 지닌다. 한편 후일에 ‘봉황대’ 세 글자의 기원과 관련하여 신재(愼齋) 조림(趙琳)과의 인연으로 이곳을 심방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는 “세속에서 전하기를, 바위가 울면 동네 안에 경사가 생기고, 일명 봉황대는 당(唐)나라 사람이 새긴 바운운”¹²⁾한 전래의 구비전승을 채록해 두었음이 주목된다. 이 같은 김인후의 언술은 명암이 마을의 경사를 예지하는 영험한 존재라는 인식이 16세기 중반을 전후로 한 무렵에 향간에 널리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줌과 동시에, 또한 간접적인 화법 형식으로 봉황대의 역사적 기원을 고증(考證)해 보인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실 중국 당대(唐代)의 저명한 시인(詩人)인 이백(李白, 701~762)의 시작(詩作), 즉 “봉황대 위에 봉황새가 노니더니, 봉황이 떠나니 대(臺)가 비었는데 강물만 스스로 흐르누나!”로 시작되는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와 죽곡의 그것을 연관시킨 논의¹³⁾ 또한 김인후가 제시한 간접적인 연대 고증에서 힌트를 얻은 결과다. 이처럼 김인후의 연대 고증과 이백의 <등금릉봉황대>와 결속된 죽곡동의 봉황대는 차츰 신화(神話) 혹은 전설의 지대에서 인문적 문화와 결속되는 국면으로의 이행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점도 첨언해 둔다. 그렇

11) 咸安趙氏世譜委, 『咸安趙氏言行錄』, 『第二編』, <提學公諱從禮>, 6쪽, “所居之東, 奇巖數丈, 斗起溪邊, 前而有大字曰, 鳳凰臺, 字體奇古, 不知何代所刻, 世傳洞中, 將有慶事, 則巖輒鳴, 故謂之鳴巖.”

12) 金麟厚, 1986, 『河西集』 卷6(한국문집총간 33), 『七言絕句』, <次趙府使琳鳴巖韻(俗傳巖鳴, 則洞中有慶, 一名鳳凰臺, 唐人所刻云.)>,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20쪽.

13) 『한국매일 뉴스(2013.10.01)』의 남도정자: ‘남도(南道) 정자기행(687)-남원 봉황정(鳳凰亭)’ 인용한 원문은 이하와 같다.(『李太白集』 卷21): “鳳凰臺上鳳凰遊, 鳳去臺空江自流.”

다면 과연 “동네에서 대대로 전해 오던” 봉황대의 명암 전설이 장차 조종례가 맞이할 일신상의 변화에도 그대로 통용되었던 것일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함안조씨언행록』에서는 아래처럼 이 사실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언하고 있음이 자못 눈길을 끌게 한다.

“(그런데) 제학공(提學公)이 과거에 급제하기 이전 시기에 여러 달 동안에 걸쳐 명암이 울어대기 시작하였다. 또 공의 자손들이 생원[生]·진사[進]나 문과(文科)에 오를 때면, 바위 또한 우는 소리를 내곤 하였는데, 그 울음소리가 흡사 커다란 종(鍾)이 울리는 듯이 하였다고 운운하였다.”¹⁴⁾

윗글대로라면 명암이 빚어낸 초자연적인 묵시(默示) 현상의 증인이란 비단 조종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정도가 아닌, 곧 함안조씨 일족의 복수의 구성원들까지 포함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명암의 비결적 수혜의 기원은 멀리 고려 말엽의 이동미의 과경(科慶)으로까지 소급되고 있었음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¹⁵⁾ 나아가 조환국은 <봉황대기>를 통해서 1845년(헌종 11) 이전까지 울음바위 전설을 직접 체험한 죽곡동 출신의 복수의 명단을 아래처럼 취합해서 소개해 두기도 하였음이 새삼 주목된다.

“(이) 명암에 얽힌 전설[說]은 아마도 오래된 듯하다 ...(중략)...본조(本朝)[조선]에 이르러서는 우리 울정(栗亭) 선조[조종례]와 월계공(月溪公)[조희문] 및 그 종형제(從兄弟)분들, 이렇게 무릇 다섯 공(公)들¹⁶⁾이 등제(登第)했을 때에 울었다. 또 일곱 분의 공들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을 적에도 바위가 울었다. 또 같은 마을의 진씨(陳氏)[진준] 집안에서 대(代)를 이어 등과(登科)했을 때에도 바위가 울었다. 그 뒤로 최씨(崔氏) 3세(世)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와 양씨(兩氏)[조씨·최씨] 집안에서 정려문(旌閭門)을 세웠을 때에도 또한 바위가 울었다고 한다.”¹⁷⁾

14) 咸安趙氏世譜委, 『咸安趙氏言行錄』, 『第二編』, <提學公諱從禮>, 6쪽, “公登第時前期, 數月而鳴, 公之子孫, 登大小科, 巖亦鳴, 聲皆如洪鍾云.(出家藏)

15) 趙煥國, <鳳凰臺記>, “其鳴也, 始於麗季, 外先李氏判書公, 登第時.”

16) 운위된 ‘오공(五公)’이란 조종례와 조람·조희문(趙希文)·조희하(趙希嘏) 및 조희안(趙希顔)을 가리키는 듯하다. 단, 조희안은 “1531년에 진사시에 합격한” 사실이 있다.(『咸安趙氏言行錄』, 『第二編』, <進士公諱希顔>, 12쪽): “嘉靖十年辛卯, 中進士, 有學行.”

물론 위의 인용문은 선조인 조희문의 <봉황대기>에 수록된 해당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부연한 결과이다.¹⁸⁾ 여하간 윗글은 명암 전설의 목격자가 함안조씨 일족 외에도, 이 마을의 주요 성씨 집단들인 나주진씨(羅州陳氏)·화순최씨(和順崔氏) 구성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암 전설의 열개는 극히 간략한 서사(敘事)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재현 양상을 보인 특징도 아울러 발견된다. 그렇다면 마을에 경사가 생겼을 때에, “그 울음소리가 흡사 커다란 종(鍾)이 울리는 듯이 하였다고 운운”한 울음소리를 둘러싼 묘사를 좀 더 자세하게 추적해 보기로 한다.

명암에서 나오는 울음소리와 관련해서는 상기 인용문 말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바위가 울었다.”고 표현하는 식의 묘사가 대부분이다. 이는 이정우(李整雨, 1908~1996)가 지은 또 다른 <봉황대기>(1976)를 통해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¹⁹⁾ 그런가 하면 황주조(黃宙彫)가 찬(撰)한 <발문[跋]>에서는 “또 동중(洞中)에 장차 경사가 있으려 하면, 밤중[夜半]에 이곳에서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므로, 일명 명암이라고 한다.”고 하여,²⁰⁾ 명암의 울음소리가 ‘종소리’와 같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기해 두기도 하였다. 한편 적시한 이정우와 황주조의 <봉황대기·발>보다 17년 뒤인 1993년에 작성된 안진모(安珍模)의 <양해도진응규창선기(梁海棹陳應圭彰善記)>에는 ‘종성(鐘聲)’이 아닌 ‘북소리’로 명암이 길한 조짐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아래처럼 기술해 두기도 하였다.

“또 대고암(大鼓巖)이 있어 촌락(村落)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하는 경사가 나타나면, 야반(夜半)에 반드시 북을 치는 소리로 알렸기 때문에, 이르기를 ‘명암(鳴巖)’이라고 하니, 대개 고설(古說)에서 운운한 것이다.”²¹⁾

17) 趙煥國, <鳳凰臺記>, “鳴巖之說, 盖固矣, 其鳴也 ... 而本朝, 則我栗亭先祖與月溪公從兄弟, 凡五公登第, 及七公登司馬時鳴焉, 同里陳氏連代登科時鳴焉, 其後崔氏三世登科, 及兩氏旌閭時, 亦鳴.”

18) 趙希文, <鳳凰臺記>, “以其感應之靈 ... 初李公東美, 與其壻栗亭公, 與先大夫慎齋先生, 及從兄希嘏登第時, 皆鳴焉. 隣丈陳儁, 及從兄希顏侄子倫, 登司馬時, 亦鳴.”

19) 李整雨, 1976, <鳳凰臺記>(鳳凰亭 所藏本), “鳴巖者. 洞中將有慶事, 則巖必鳴.”

20) 黃宙彫, 1976, <跋>(鳳凰亭 所藏本), “且洞中將有慶事, 則夜半於此, 出鐘聲殷殷, 故一名鳴巖.”

21) 黃留周, 1993, <梁海棹陳應圭彰善記>(鳳凰亭 所藏本), “又有大鼓巖, 村落出科宦之慶, 夜半必報打鼓聲, 故曰鳴巖.”

윗글에서 주목되는 점은 울음바위의 이름을 큰 북 바위라는 뜻의 ‘대고암(大鼓巖)’으로 칭하는 가운데, 실제 “북을 치는 소리로 알렸다.”는 구체적인 정황 묘사로 명암이라는 호칭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인용문 말미에서 “대개 고설(古說)에서 운운”한 근거를 제시해 두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북을 치는 소리로 알렸다.”는 정황 묘사가 찬자(撰者)의 직접적인 목격에 의한 것이 아닌, 즉 그간 “오래도록 전해져 온 이야기[古說]” 혹은 구비전승을 채록해 둔 결과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상 “대개 고설(古說)에서 운운”한 이란 표현은 조환국이 <봉황대기>를 통해서 “명암에 얽힌 설(說)은, 아마도 오래된 듯하다.”²²⁾며 전설의 유래를 설명한 대목과 동일한 맥락인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설·전설·구비전승과 결부된 특정한 인물·성씨·사건 등이 비단 한두 사례에 국한된 정도가 아니므로, 전설과 팩트 혹은 신화와 역사 사이에 가로 놓인 모호한 경계점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자신의 체험에 바탕하여 작성한 조희문의 <봉황대기>는 합리적인 이해를 위한 일정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지난 1552년[壬子] 겨울에도 연이어 한 달 동안이나 울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커다란 종소리와 같았다. 그러나 그 소리를 멀리서 들으면 분명히 이 바위에서 나는데 막상 바위에 가까이 가보면, 그 바위의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아무튼 위의 일이 있고 난 후인 그 이듬해 봄에 제[希文]가 또한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참으로 영험스러운 일이다.”²³⁾

조희문의 <봉황대기>는 오랜 연원을 간직한 명암 전설이 1552년(명종 7) 당시까지 구전(口傳)되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감지케 해준다. 다시 말해서 명암 전설은 일정한 팩트에 기반한 구비전승으로 상전(相傳)되어 왔던 까닭에, 단순히 가공된 상상력의 산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측면이 엄연히 존재했던 것이다.

이처럼 전설과 사실 간의 모호한 경계(境界) 지대에 기반한 봉황대·명암 구비전승은 차후 남원부 대곡방의 죽곡동으로 이주한 함안조씨 내의 별파인 제

22) 趙煥圓, <鳳凰臺記>, “鳴巖之說, 蓋古矣.”

23) 趙希文, <鳳凰臺記>, “壬子秋冬, 連鳴一月, 聲如洪鍾, 遠而聽之, 則聲在於巖, 迫之則, 不知聲之所自出也, 明年春, 希文不才, 亦參一科, 是亦異事也.”

학공과 일문을 상징해 주는 아이콘으로 변신하게 된다. 그 계기는 조림이 <명암운(鳴巖韻)> 한 수(首)를 창작하고, 김인후를 위시하여 신재의 후손들이 이 원운(元韻)에 차운시와 기문(記文) 등으로 화답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유하면서 차츰 정착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이 사안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봉황대와 명암 전설이 특정한 문종과 결속되는 경위와 그 안에 내포된 상징적인 의미를 아울러 반추해 보기로 한다.

3. 제학공파(提學公派)의 정주(定住) 아이콘화

1) 신재(愼齋) 조림(趙琳)의 명암운(鳴巖韻)

신재 조림(?~?)은 봉황대·명암을 취급한 최초의 기문(記文)을 남긴 조희문의 부친이자, 하서 김인후와는 사돈지간인 인물이다. 조림은 “1513년(중종 8)에 문과에 올라, 양덕(陽德) 현령(縣令)과 흥해(興海) 군수(郡守) 및 무주(茂州)·청송(靑松) 부사(府使)를 거쳐서,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을 역임한 환력(宦歷)을 거쳤다.²⁴⁾ 특히 조림은 양덕·흥해·무주·청송 등지의 “사군(四郡)을 두루 관장하는 동안에 오로지 청렴·결백에 힘써, 세인들이 청백리(清白吏)라 칭한” 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²⁵⁾ 급기야 “후일 청송부(靑松府)의 사민(士民)들은 생사당(生祠堂)을 건립하여 공을 길이 추모하였을” 정도로,²⁶⁾ 심히 모범적인 목민관의 한 전범을 몸소 선보였던 관인(官人)이기도 했다.

본 논의와 관련해서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조림이 봉황대와 명암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원운인 <명암운>을 남긴 작가라는 사실일 것이다. 일단, 이 지점에서 칠언절구 형식을 취한 조림이 지은 <명암운> 한 수를 찬찬히 음미해 보기로 한다.

“바위 위의 띠풀 정자로 동학(洞壑)[동천]이 영험해졌고
올라와 사방에 임하니 거진 비가 왔다가 깎 범도 하누나

24) 咸安趙氏世譜委, 『咸安趙氏言行錄』, 『第二編』, <愼齋公諱琳>, 9쪽, “正德八年癸酉, 登文科, 行陽德縣令興海郡守, 茂州靑松府使, 至成均館大司成.”

25) 咸安趙氏世譜委, 『咸安趙氏言行錄』, 『第二編』, <愼齋公諱琳>, 9쪽, “歷典四郡, 專務廉潔, 世稱清白吏.”

26) 咸安趙氏世譜委, 『咸安趙氏言行錄』, 『第二編』, <愼齋公諱琳>, 9쪽, “後靑松士民, 立生祠永慕.”

옛 정원의 빼어난 풍경에 늙어 죽음도 견뎌낼 듯한데
물결마냥 홍진(紅塵)에 휩쓸렸으니 이내 삶이 가소롭구나.”²⁷⁾

조림은 <명암운>을 통해서 띠풀로 엮은 정자 한 채로 인해 이곳 봉황대 일대의 풍광이 새로워진 기쁨을 토로하는 가운데, 이와 대비되는 환해(宦海)의 세계가 부질없는 노름에 불과했다는 자기 성찰로써 시를 마무리하였다. 정자를 창건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논의, 곧 이른바 구정설(構亭說) 의론을 파생시킨 제1구와 관련해서는 후론할 예정이지만, 정자를 전면에 내세운 위의 시는 봉황대·명암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향토사(鄉土史)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史料的) 가치를 담지하고 있다.

한편 『함안조씨언행록』에 따르면 조림의 경우, “하서 김인후 선생과 서로 왕복하며 시(詩)를 주고받으며 읊조렸고, 도의(道義)의 사감을 맺었던”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²⁸⁾ 차후 조림의 아들인 조희문이 김인후의 문인이자 만사위가 되면서, 두 사람은 더욱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일찍이 조림의 연고지인 죽곡동을 찾았던 김인후는 조림의 <명암운>에 차운한 시를 남기게 된다. 김인후의 문집인 『하서집(河西集)』에는 <차조부사림명암운(次趙府使琳鳴巖韻)>이라는 제하의 아래의 칠언절구 한 수가 수록되어 있다.²⁹⁾

“천지가 장구하니 만물 또한 영험하고
(천지·만물이) 고색창연하니 그 얼마나 밝고 어둠을 겪었을까
모름지기 적(寂)·감(感)³⁰⁾이란 종당에 끝이 없음을 알지니
통하고 막힘을 어찌 일찍이 생전에 분별하겠는가?”

상이한 두 패턴의 리듬으로 유지되는 우주론적 전망 하에 인간사 순역(順

27) 咸安趙氏世譜委, 『咸安趙氏言行錄』, 『第二編』, <慎齋公諱琳>, 9쪽, “巖上茅亭洞壑靈, 登臨宜雨又宜晴, 故園形勝堪終老, 浪走紅塵笑此生.”

28) 咸安趙氏世譜委, 『咸安趙氏言行錄』, 『第二編』, <慎齋公諱琳>, 9쪽, “公與河西先生, 往復酬唱, 爲道義交.”

29) 金麟厚, 『河西集』 권6, 『七言絕句』, <次趙府使琳鳴巖韻 (俗傳巖鳴, 則洞中有慶, 一名鳳凰臺, 唐人所刻云.)>, 120쪽, “地久天長物亦靈, 蒼然幾歲度陰晴. 須知寂感終無極, 通塞何嘗間有生.” 제4구의 ‘통색(通塞)’이란 인생사 순경(順境)과 역경(逆境)을 에둘러 표현한 시어다.

30) 운위된 ‘적감(寂感)’이란 『周易』, 『繫辭傳(上)』에 전거를 둔 어휘로, “생각함도 없으며(無思也), 하는 것도 없는(無爲也)” 역의 원리적 특성을 표현한 대목, 즉,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다가(寂然不動), 느껴서 천하의 연고[故]를 통한다.(感而遂通天下之故)”고 설파한 두 구절에서 취한 것이다. 金碩鎭, 『大山 周易講解(下經)』, 大有, 1993, 335~336쪽.

逆)의 이치를 결부시킨 위의 시는, 빼어난 성리학자이자 철인(哲人)이었던 김인후가 평소 품고 있었던 『주역(周易)』에 입각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잘 응해되어 있다. 보다 더 중요한 점은 김인후가 창작한 <차조부사림명암운>의 경우, 차후로 조림의 <명암운>에 대한 차운시의 원조(元祖)로 정착하게 되면서 술한 시인·묵객들로 하여금 차운시에의 창작 의욕을 추동케 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실상 현재 봉황정 내부에 게시된 판상시(板上詩)만 하더라도 연작시인 <봉황대명암차운(鳳凰臺鳴巖次韻)>을 위시하여 수십 종에 이르고 있을뿐더러, 또한 1976년을 전후로 하여 “800여 수(首)에 이르는” 『봉황대시집(鳳凰臺詩集)』이 발간되는 가시적인 결실로도 이어지게 된다.³¹⁾ 이는 일견 16세기에 담양(潭陽)에 소재한 면양정(倓仰亭)과 송강정(松江亭)·소쇄원(瀟灑園) 시단(詩壇)과 같이 누정(樓亭)을 중심으로 상호 왕래했던 문인 그룹의 문학 활동을 연상케도 해준다.³²⁾

그러나 조림의 <명암운>과 김인후의 <차조부사림명암운>에서 연원한 『봉황대시집』의 보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에, 이 시집에 대한 연구가 남원시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대신에 『함안조씨언행록』에 수록된 차운시와 봉황정에 게시된 후손들의 해당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서, 이 작품들이 서서히 제학공과 일문의 정주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갔던 정황들을 추적하기 위한 애초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다.

2) 제학공과 후손들의 차운시(次韻詩)

앞에서 소개한 김인후의 <차조부사림명암운>에 뒤이어 제학공과 후손들 중에서 조림의 <명암운>에 차운시로 화답(和答)한 인물로는 조희정(趙希鼎, 1525~?)과 조희문·조유관(趙惟寬, 1588~?)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삼인의 경우는 『함안조씨언행록』에 수록된 인물들에 해당하므로, 언행록에 등재되지 않은 후손들이 지은 차운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실제 현전하는 봉황정 내부에 전시된 판상시의 작가들 중에는 함안조씨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비공식적인 문헌으로 분류되는 누정시(樓亭詩) 혹은 판상시를 통해

31) 黃留周, <鳳凰臺記>, “乞詩于嶺湖諸章甫□, 幾至八百餘首, 表題以鳳凰臺詩集, 發刊成篇.”

32) 권혁명, 2006, 「16세기 石川 林億齡과 息影亭 詩壇」, 『漢文學報』 15, 우리한문학회, 217쪽. 권혁명은 식영정 시단의 경우, 임억령(1496~1568)에게 직접 문학을 전수받았고, 또 그를 중심으로 문학적 공통성을 함께 했던 그룹이라는 의미에서 면양정·소쇄원 시단 간의 변별성을 강조했다.

서 <명암운>에 차운했던 정황들을 방증해 준다.

한편 『함안조씨언행록』과 같은 공식적인 문헌 자료라 하더라도, 차운시가 수록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어서 추적이 불가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당시 세인들이 ‘처사(處士) 조(趙) 모(某)’라 일컬었다.”던 조희정의 경우,³³⁾ “일찍이 집에서 지내면서 <명암운(鳴巖韻)>을 지었다.[『월계집(月溪集)』에 나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다.³⁴⁾ 『월계집』을 열람하지 않는 한 조희정의 차운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반면에 <봉황대기>의 찬자인 조희문의 차운시는 정작 『함안조씨언행록』에는 누락된 상태지만, 읍지류인 『용성지』와 봉황정에 게시된 판상시를 통해서 해당 작품들을 직접 접할 수 있다. 먼저, 『용성지』의 <봉황정> 항목에 수록된 ‘수찬 조희문’의 차운시를 감상해보기로 한다.

“예로부터 인결은 신령한 땅 기운에 달려 있다고 했으니,
연이은 높은 벼슬이 청천을 비취 새롭게 하누나.
학자의 기풍을 서로 계승함은 응당 하늘의 뜻일지니,
후손[後生]에게 바라노니 공부에 부지런히 힘쓰기를!”³⁵⁾

조희문이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시절에 창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의 시는, 장인인 김인후에 이어서 부친인 조림의 원운시(元韻詩)에서 차운한 두 번째 작품에 해당한다. 조희문은 봉황대와 명암을 빚댄 제1구를 과거 합격을 암시한 제2구와 결속시킨 가운데, ‘학자의 기풍[書香]’ 운운한 가풍(家風)을 중단없이 계승할 것을 촉구하는 말로써 차운시를 마무리하였다. 즉, 조희문의 차운시는 앞서 김인후가 우주론적 배경하에 인간사 통색(通塞)의 문제를 역학적(易學的) 원리에 의거하여 통찰해 보인 작품과는 판이한 맥락임이 간취된다. 좀 더 부연하자면 조희문이 지은 차운시의 경우, 봉황대·명암이 제학공파 일문의 학자적 가풍과 면학 정진에의 노력과 긴밀히 결속되는 식의 글쓰기 구상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조림에 뒤이은 조희문의 단계에서 봉황대

33) 咸安趙氏世譜委, 『咸安趙氏言行錄』, 『第二編』, <承仕郎公諱希鼎>, 10쪽, “公性本清雅, 自晦名實, 故當世稱之處士趙某.”

34) 咸安趙氏世譜委, 『咸安趙氏言行錄』, 『第二編』, <承仕郎公諱希鼎>, 10쪽, “嘗居家, 作鳴巖韻.(出月溪集) 후손 조성범(趙性範)·조진규(趙鎭奎)가 2책으로 만든 것이나, 한국 고전종합DB에는 누락된 상태다.

35) 龍城誌編纂委(가칭), 『龍城誌』 卷2(하버드 연칭도서관 소장본, 奎17499), 『樓亭』, 33b~34a, “鳳凰亭在大谷坊, 一名鳳巖 ... ○修撰趙希文詩, 人傑從來在地靈, 聯翩冠蓋照新晴, 書香相繼應天意, 努力工夫望後生.”

와 명암이 남원부의 대곡방에 정착한 제학공과 일문의 성공적인 정주를 상징해 주는 아이콘으로 변신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조희문의 아이콘화(iconization) 시도는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창작된 후손 조유관의 차운시를 통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표출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함안조씨언행록』의 「제3편」 <증참판공휘유관(贈參判公諱惟寬)> 항목에서는 “공은 평소에 도덕과 명망이 있었다. 또 『중용(中庸)』, 『대학(大學)』과 『성리대전(性理大全)』 등과 같은 서책에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 지식과 견문이 고명(高明)하여 조기에 사마(司馬)에 올랐다.”고 소개해 두었다.³⁶⁾ 즉, 조유관은 학행(學行)을 겸비한 유교적 지식인으로, 상당한 면학열을 불태웠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자적 면모를 지닌 조유관의 경우, 선조인 조림의 <명암운>에 차운하여 아래와 같은 작품을 남겼다.

“봉황새 빌려 지은 바위 이름 잘도 영험하고
 동방의 푸른 감덕(監德)으로 비 그쳐 맑은 날씨
 하물며 기이한 징명(徵鳴)으로 문득 보답하였음에라
 손님과 과갑(科甲)[과거]으로 남은 인생 고대하리라!”³⁷⁾

조유관은 봉황대에 자리한 명암의 예지력과 정자에서 전망되는 맑게 갠 날씨 묘사를 전한 후에, ‘징명(徵鳴)’이라는 시어로 대체된 과거 합격의 경사를 환기시키면서, 사마시에 뒤이은 문과 급제에의 포부를 다지는 것으로 차운시를 마무리하였다. 일견 전반부가 조림의 원운을 연상케 해준다면, 제3, 4구는 제학공과 일문의 과경사(科慶史)에의 계승 의지를 다진 것으로, 후손들에게 면학을 촉구해 보인 조희문의 당부에 화답하는 맥락이 읽혀지기도 한다. 이 또한 조희문의 차운시와 마찬가지로, 봉황대와 명암 전설과 제학공과 일문을 결속시킨 시적 구상이 재현된 결과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림이 <명암운>을 선보인 15세기 후반에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던 현상이 16세기 중·후반 무렵에 이르면서 봉황대의 명암 전설이 함안조씨 제학공과 일문의 ‘서향(書香)·과환

36) 咸安趙氏世譜委, 『咸安趙氏言行錄』, 「第三編」, <贈參判公諱惟寬>, 15쪽, “公素有德望, 肆力於庸學性理等書, 識見高明, 早登司馬.”

37) 咸安趙氏世譜委, 『咸安趙氏言行錄』, 「第三編」, <贈參判公諱惟寬>, 15쪽, “巖名假以鳥中靈, 監德東方瑞日晴, 況有奇徵鳴輒報, 實與科甲待餘生.” 운위된 ‘감덕’이란 고대의 예언서의 일종인 『天官書』 卷27의 이하의 구절에 전거를 둔 표현이다. “正月, 與斗牽牛, 晨出東方, 名曰監德, 色蒼蒼有光.” 한편 ‘징명(徵鳴)’이란 과거 합격과 같은 경사가 임박하였을 때 바위가 울곤 하였다던 설화를 상기시킨 시어다.

(科宦)’을 상징해 주는 아이콘으로 서서히 정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봉황대에 서린 예언적 전설은 파조 조종례 이후로 남원부에 정착한 제학공과 문중 구성원들로 하여금 문벌(文閥)의 권위를 창출·계승하는 전통을 형성하는데 크게 일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과거에 연달아 합격하는 경사가 그리 흔한 일이 아닐뿐더러, 또한 연경(延慶)의 시한이 무한정 장구할 수도 없는 노릇임은 “통하고 막힘을 어찌 일찍이 생전에 분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던 김인후의 차운시에 담긴 철리(哲理)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인간사의 현실이다. 이는 19세기 중반 무렵에 작성된 후손 조환국의 <봉황대기>를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월계(月溪)의 9대손 환국”은 약 300여 년이 흐른 뒤인 1845년(헌종 11)을 전후로 하여, <봉황대기>를 통해서 명암 전설이 바야흐로 실증(實證)의 처지에 직면했음을 아래처럼 토로해 두었음이 자못 주목된다.

“아! 연계(蓮桂)의 방목[榜]에 앞뒤로 서로 이어가면서 명암이 응했거늘,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으니, 어찌 그 이상기도 하도다! ...(중략)... 오호라! 예전의 봉황이 되돌아가 갑자기 형체도 없는 구름이 되었으니, 인하여 흩어져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흔적조차 없다. 우리 조씨[趙]의 한 사람으로 이 동네에 사는 자라면, 실로 개탄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³⁸⁾

조환국은 <봉황대기> 후미를 빌려서 봉황대·명암 전설이 단절된 작금의 현실을 지적해 보임과 동시에, 또한 더는 “과환(科宦)의 경사”가 발생하지 않는 19세기 중반 무렵의 함안조씨 제학공과 일문의 현주소를 이백의 “봉황이 떠나니 대(臺)가 빈” 격의 처지인 것으로 진단해 보였다. 실제 현전하는 봉황정에 게시된 시 작품들 가운데는 봉황이 ‘귀거(歸去)’한 시어(詩語)가 심심찮게 발견된다.³⁹⁾ 이는 과거 합격을 예언했던 명암 전설이 더는 전승되지 않고 있는

38) 趙煥國, <鳳凰臺記>, “噫, 蓮桂之榜, 前後相繼, 而鳴巖之應, 今古不若, 何其異哉, 鳴巖之號也 ... 鳳歸奄忽雲, 仍散至今無, 我趙一人之居是洞者, 豈非慨然處乎.” 운위된 ‘연계지방(蓮桂之榜)’이란 사마시에 합격한 이들의 명단인 방목(榜目)을 지칭하는 어휘다.

39) 예컨대 <鳳凰臺韻>이라는 제하의 칠언율시 형식을 취한 연작시 7수의 경우만 하더라도, “鳳飛那去石成臺”(高在益)라든가, 혹은 “鳳去岩高十丈埕”(李栢壽)라는 시구가 포함된다. 또한 이복겸(李福謙)과 황기(黃璣) 두 사람의 칠언절구 2수로 이뤄진 관상시에도 각기 순서대로 “鳳去臺□石有雲”(제2수)·“鳳飛千載石遠雲.”이라는 시구가 엮여 있다. 여타의 사례들을 다 소개하지는 않는다.

현실을 시로써 적시해 보인 것이다. 실상 「제1편」에서 「제5편」까지의 체재(體裁)로 이뤄진 『함안조씨언행록』에서 조환국이 <봉황대기>를 작성한 시기와 상응하는 「제4·5편」에서는 문·무과 출신자가 발견되지 않는 대신에, 두 편에 선정된 25명의 인물들 중에서 4명의 후손이 증직(贈職)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⁴⁰⁾ 반면에 14세기 중·후반에서 16세기 후반까지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제2편」의 경우, 범 덕곡공파 문중의 관운(官運)이 극점에 도달한 시기에 해당하고,⁴¹⁾ 우리는 그 내용의 일부를 앞서 조희문·조환국 양인(兩人)이 찬한 <봉황대기>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한 바가 있다. 자연히 봉황대와 명암 전설은 제학공파 일문의 관직 진출이 두드러졌던 시기에 이 문중의 가풍을 상징해 주는 아이콘으로 변신하였지만,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은” 19세기를 전후로 한 무렵에 이르러서는 더는 문중의 문벌적 권위를 상징해 주는 아이콘으로 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19세기 중반 이후로 명암 구비전승은 아득한 추억의 지대로 퇴각하기에 이르렀고, 대신에 그 빈 자리는 봉황정을 무대로 한 계(契) 조직에 의한 시문(詩文) 창작과 같은 지역사회의 인문적 활동으로 대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봉황대와 명암 전설이 탈문중화라는 국면으로 이행되는 추이에 맞춰서, <명암운>의 작가인 조림이 “올라와 사방에 임했던” 봉황정이 새롭게 지역민의 각광을 받는 공동의 향유 공간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이에 그간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던 봉황정 창건 시기와 그 주체, 그리고 중수와 계모임의 결성 등으로 이어졌던 봉황정의 영건사(營建史)를 간략하게 추적해 보기로 한다.

4. 봉황정 증건과 탈문중화 국면

조선시대 때 편찬된 각종 읍지류(邑誌類)에는 <누정(樓亭)> 조항이 필수적인 콘텐츠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날 누각·정자가 사대부 계층들의 유희

40) 金鍾秀, 2019, 『德谷 趙承肅과 咸安趙氏言行錄』 연구, 『동방문화와 사상』 6, 동방문화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53쪽. 『함안조씨언행록』은 고려 말엽에서 1949년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귀감이 될만한 행적을 남긴 범 덕곡공파 후손 68인을 선정한 문중 내적 도덕 교육용 텍스트로, 러말의 충신으로 파조가 된 덕곡 조승숙을 닮아야 할 동일시 모델로 설정하고 있다.

41) 김종수 역주, 『5백 년 명문가의 도덕적 원천: 함안조씨언행록』, 경상국립대 출판부, 2021, 50쪽.

(遊興)·완상(玩賞)을 위해 축조된 매우 유용한 공간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누정이 자리 잡은 장소는 특정 지역에서 가장 경관이 수려하거나, 혹은 시계(視界)가 탁 트인 전망권을 확보한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충남(忠南) 지방에 소재한 주요 누정들을 두루 탐사하고 내린 잠정적인 하나의 결론, 즉 “누정이 있을 만한 자리에는 언젠가 다시 누정이 세워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⁴²⁾는 확론은 논의 중인 봉황정의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허경진이 제시한 귀납적 결론처럼, “그윽한 동학(洞壑)과 천석(泉石)을 차지한 가운데, 구름 가득한 산과 원야(原野)의 수승(殊勝)한 경관을 소유하였으니, 이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정경이란 한 고을에서 으뜸이다.”는 조희문의 묘사대로,⁴³⁾ 죽곡동의 봉황정도 수승한 자연경관과 원경(遠景)을 관망하기에도 매우 적절한 공간에 건립되었다. 이를테면 “하늘이 명구(名區)를 위해 이 대(臺)를 지었다.”라거나,⁴⁴⁾ 혹은 “남원(南原) 제일의 봉황대”⁴⁵⁾ 운운한 판상시 시구들도 조희문의 공간 묘사와 동일한 맥락인 셈이다. 또한 봉황정의 경우 16세기에 현재의 터인 대하(臺下)에 창건(創建)되었다가 다시 중건·중수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에, 누정이 있을 만한 자리에는 언젠가 다시 건물이 세워지기 마련인 이치를 실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천혜의 공간인 봉황대 아래 지점에 봉황정을 최초로 건립한 이는 과연 누구였던가? 그런데 약칭 구정설(構亭說) 혹은 기정설(起亭說)로 요약되는 이 물음은 봉황정의 영건사와 관련하여 다소 예민한 사안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최초로 정자를 건립한 구정설 의론의 주체와 관련해서 죽곡동의 함안 조씨와 나주진씨[여양진씨] 간에 상이한 기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조림의 <명암운>과 후손 조환국의 <봉황대기>에 수록된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특정한 가문 전래의 가승(家乘) 자료가 아닌, 즉 공문서에 준하는 성격을 띤 『용성지』의 권위에 의해 구정설의 주체임을 추인받고 있다. 구정설의 주체와 관련된 논의는 봉황정 영건사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에 해당할뿐더러, 중수와 중창(重創)으로 이어지는

42) 허경진, 2000, 『충남지역 누정문학 연구』, 태학사, 181쪽.

43) 趙希文, <鳳凰臺記>, “擅洞壑泉石之幽, 而有雲山原野之勝, 登覽之美, 甲于一鄉.”

44) 金台鎮, 연도 미상, <板上詩>(鳳凰亭 所藏本), “天爲名區作此臺, 鳳凰千載白雲開.” 김태진과 아래 이중의(李中儀)의 칠언율시의 경우, 또 다른 연작 차운시의 시제(詩題)인 <鳳凰臺鳴巖次韻>과 비슷한 유형일 것으로 짐작되나, 타이틀이 부재한 관계로 ‘판상시’라는 범칭으로 소개하게 되었다.

45) 李中儀, 연도 미상, <板上詩>(鳳凰亭 所藏本), “南原第一鳳凰臺, 四面雲山饒程開.”

중·후기 국면에로의 이행 경위를 이해하기 위한 선결 조건에 해당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제에 봉황대에 최초로 정자를 건립한 주체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이 사안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를 일단락짓고자 한다.

우선, 함안조씨 제학공과 측에 의한 구정설의 의론은 조림이 <명암운>에서, “바위 위의 띠풀 정자로 동학(洞壑)이 영험해졌고” 운운한 구절을 결정적인 전거(典據)로 삼고 있다. 이에 후손 조환국은 선조인 조림이 정자를 창건한 주체임을 아래처럼 내외에 천명해 두기에 이른다.

“명암이라는 이름[號]에 대해서는 신재공(愼齋公)[조림]의 <명암운>에서 이르기를, ‘바위 위에 띠로 이은 정자로 동학(洞壑)[동천]이 영험해졌고.’ 운운하시었다. 이로써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리 선조께서 대(臺) 위에 정자[亭]를 일으키신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 같다.”⁴⁶⁾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조환국은 조림의 <명암운>에 근거하여 정자를 창건한 ‘기정(起亭)’의 주체가 조림인 것으로 단정하였다. 그런데 조림의 <명암운> 제2구에서 “올라와 사방에 임하니 거진 비가 왔다가 깎 범도 하누나!”⁴⁷⁾라고 묘사한 대목의 의미를 좀 더 세심하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림은 자신이 봉황정에 ‘등림(登臨)’한 관찰자의 입장이었음을 밝혔으나, 정작 “정자를 일으킨[起亭]” 사실과 관련한 시어를 남기지 않은 때문이다.

한편 두 번째로 진준에 의한 정자 창건설은 “생원 진준이 일찍이 그 대(臺) 위에 정자[亭]를 엮었다.”⁴⁸⁾고 기록해 둔 『용성지』의 간략한 설명이 전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누정>편을 포함한 여타의 <연혁(沿革)·군명(郡名)·강계(疆界)·방명(坊名)> 등등과 같은 편들의 경우, 현장 조사와 당대인들의 확인을 거쳐서 편집되는 과정을 경유하기에,⁴⁹⁾ 읍지류인 『용성지』는 공문서에 준하는 텍스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림과 김인후·조희문이 지은 원운과 차운시는 『용

46) 趙煥國, <鳳凰臺記>, “愼齋公鳴巖韻曰, 巖上茅亭洞壑靈, 以此觀之, 則我先祖起亭於臺上, 昭昭如也.”

47) 咸安趙氏世譜委, 『咸安趙氏言行錄』, <愼齋公諱琳>條, 9쪽, “巖上茅亭洞壑靈, 登臨宜雨又宜晴.”

48) 龍城誌編纂委, 『龍城誌』 卷2, 「樓亭」, 33b~34a, “鳳凰亭在大谷坊, 一名鳳巖 ... 生員陳儁嘗構亭其上.”

49) 『용성지』는 적시한 편명 외에도, 「姓氏·風俗·形勝·山川·土產·城郭·館宇·學校·書院·公署·教坊·左營·譯院·橋梁·津航·場市·祠廟·佛宇·人物(上下)」 등과 같은 총 24편으로 구성된 체제를 취하고 있다.

성지』에 수록되어 있지만, 조림이 명암대에 “정자를 일으킨”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뿐만이 아니다. 조희문이 지은 <봉황대기>에는 “이웃의 어른이신 진준(陳僑)”⁵⁰⁾ 운운한 표현이 발견된다. 이는 진준이 자신의 부친인 조림과 비슷한 연배임을 확인해 보인 것이다. 더욱이 청백리라 칭해졌던 조림은 모범적인 목민관으로서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다. 그런 조림이 당대에 진준이 이미 정자를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손으로 한 채를 더 건립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더욱이 조희문은 <죽곡실록(竹谷實錄)>을 통해서 죽곡동이 전래의 미풍양속으로 훈화(薰化)된 뿌듯한 고장이었음을 몸소 읊조린 바가 있었다.

“죽곡마을[竹塢]의 명암은 옛적부터 운운하던 바이요,
월계산 아래에는 유강(柳江)이 스미누나
논밭이며 동산·수석(水石)에 내 땅이 없을지라도,
안개비며 소나무·대숲만으로도 저절로 하나의 마을일세
헐고 기리거나 옳고 그르니 하는 소리 미치질 못하고,
나고 죽거나 근심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에 예(禮)로 서로 나누네
『시경[詩]』·『서경[書]』 속의 옛 풍속 다른 일이 아니요,
연로한 동네 어르신들 자식·손자 가르치는 법 서로 전하구나!”⁵¹⁾

조희문의 상기 전언대로라면 “진(陳)·조(趙) 두 성씨” 간에 반목과 갈등이 존재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1845년에 이르러 조림의 <명암운> 한 구절을 전거로 삼아서 내린 결론, 곧 “우리 선조께서 대(臺) 위에 정자[亭]를 일으키신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 같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 “1976년 11월 하순”⁵²⁾에 황주조가 작성한 <발문[跋]>에는 정자를 창건한 주체가 진준이었음을 아래처럼 분명하게 증언해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일찍이 생원(生員) 진공(陳公)이 정자[亭]를 그 (봉황대) 위에 얹고
소요(逍遙)하여, 남원에서 제일가는 장수의 맥[壽脈]을 다하였다.”⁵³⁾

50) 趙希文, <鳳凰臺記>, “隣丈陳僑.”

51) 趙希文, <鳳凰臺記>, “惟此洞地, 瘠民貧人, 無外慕, 惟以力耕讀書爲業, 故余嘗有詩曰, 竹塢鳴巖古所云, 月溪山下柳江濱, 田園水石無多地, 煙雨松篁自一村, 毀譽是非聲不到, 存亡甲慶禮相敷, 詩書舊俗非他事, 父老相傳教子孫, 乃竹谷實錄也.”

52) 黃宙彫, 1976, <跋>(鳳凰亭 所藏本), “歲丙辰陽復月下澣, □□長水黃宙彫識.”

윗글은 풍수지리학적인 견지에서 나는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는 비봉포란(飛鳳抱卵) 형국을 취했다던 대곡리에서 마을 입구의 봉황대가 봉황의 알[卵] 자리에 해당하기에, 대상(臺上)에 건물 따위를 짓는 일이 금기시되어 오던 차에, 진준이 “정자를 그 (대) 위에 얹은” 처사를 한의학의 진맥(診脈)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인 것이다. 비록 진준에 의한 대상의 정자 건립 처사를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위의 인용문은 그간 제기되어 왔던 제반 의론들을 참작한 결과를 반영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최초로 정자를 창건한 주체가 “생원(生員) 진공(陳僑)”이라는 사실⁵⁴⁾이 1976년 무렵에 이르러서는 확고부동한 정론(定論)을 형성한 상태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환국이 제기한 선조에 의한 정자 창건설은 조림과 진준 두 사람이 타계한 이후로, 그 언제부터인가 암묵적인 허용 상태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 이면에는 함안조씨 제학공파 문중이 이 지역에서 문벌적 권위를 획득함으로써, 비교 우위에 놓인 향권적(鄉權的) 영향력 문제가 내밀히 관여한 결과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 조환국의 <봉황대기>로 대변되는 “실로 개탄스러운” 처지로 상황이 반전되면서 서서히 봉황대 전설이 퇴각하는 대신에, 봉황정이라는 휴식 공간이 지역민의 삶과 새롭게 연대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현재의 봉황정은 “또 일찍이 생원(生員) 진공(陳公)이 그 (봉황대) 위에 정자를 얹고 소요”⁵⁵⁾하곤 했던 위치를 변경해서, 1976년에 이르러 “새로 정자한 채를 (봉황)대 아래[臺下]에 지은” 것이다.⁵⁶⁾ 이처럼 정자를 건립한 위치가 봉황대 위쪽이 아닌 ‘대하(臺下)’로 조정된 이유는 전래의 풍수지리설을 감안한 결과이면서, 또한 좀 더 풍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도가 동시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전근대 시기인 조선왕조 때에도 지금의 위치에 여러 차례에 걸친 중건·중수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운계(雲溪) 황신구(黃信龜, 1633~1685)의 <차명암운병서(次鳴巖韻并序)>가 17세기 후반인 “1676년 여름[夏] 4월”에 작성되었던 이면에는,⁵⁷⁾ 기존의 정자를 중

53) 黃宙彫, <跋>, “且嘗生員陳公, 構亭其上, 而逍遙, 儘乎南原之一壽脈也.”

54) 黃宙彫, <跋·古蹟實錄>(鳳凰亭 所藏本), “鳳凰臺在大谷坊 ... 生員陳僑嘗構亭其上云.” <고적실록>은 <발문[跋]>의 말미에 수록된 형식을 취했는데, 조희문의 <죽곡실록>을 모방한 듯하다.

55) 黃宙彫, <跋>, “且嘗生員陳公, 構亭其上, 而逍遙.”

56) 黃宙彫, <跋>, “新築一亭于臺下.”

57) 黃信龜, 1676, <次鳴巖韻并序>(鳳凰亭 所藏本), “鳳鳴竹谷之於 ... □□□□丙辰夏四月己亥, 雲溪 黃信龜.” <차명암병서>는 <차명암서(次鳴巖序)>와 하나의 판액 속에 나란히 병치되어 있다.

건 혹은 중수한 데 따른 헌정(獻呈)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간에서는 이 연도를 명암대 아래 터에 정자를 창건한 연도로 제시하지만, 간접적인 기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1676년(숙종 2) 이후로는 봉황정 영건사를 추적할 만한 문헌 기록이 더는 확인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전면 3칸과 측면 1칸 규모에 팔작지붕 겹처마로 이뤄진 지금의 봉황정은 1976년에 ‘신축’한 건물임을 이정우와 황주조의 <봉황대기·발>은 동시에 증언해 주고 있다.⁵⁸⁾ 이는 지난 1954년에 이르러 봉황정 주변에 “소나무와 오동나무를 심고 기르며, 바위 아래에 시냇물을 끌어와 연못을 만들고, 수초[莠]를 심고 어묘(魚苗)[치어]를 던지는”⁵⁹⁾ 등의 사전 공사에 착수한 지 약 20여 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또한 “겨우 구규(舊規)에 새로 정자 한 채를 대하(臺下)에 축조하여 걸리게 하였다.”는 후속 구질로 미뤄보건대,⁶⁰⁾ 기존의 정자 터에 규모를 확장하는 차원에서의 공역(工役)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은 자료 부족으로 베일에 가린 봉황정 영건사를 추적하는 작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록적 가치를 내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한문혼용체로 작성된 황유주(黃留周)의 <봉황대기>에 주목한 끝에,⁶¹⁾ 1년 뒤인 1977년에 정자가 건립되었다는 세간의 일설은 부분적인 착오임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한편 가장 최근의 기문이자 마지막 판상 작품에 해당하는 <양해도진응규창선기>에는 봉황정이 파급한 계 조직과 시문집 발간과 관련하여 아래처럼 중요한 정보를 채록해 두었음이 크게 주목된다.

“대(臺) 아래에 봉황정을 창건(創建)하고, 뜻을 같이하는 수십 인이 관장해서 계(契)를 결의(結誼)하고, 자체적으로 경답(耕畓) 4두락(斗落)을 공헌(貢獻)하여, 웅장한 시책(詩策)을 도모하였으니 ...”⁶²⁾

윗글 속의 “동지(同志) 수십 인(人)”이란 “봉황정 계원(契員) 일동(一同)”⁶³⁾

58) 李整雨, <鳳凰臺記>, “丙辰壬十一月下澣, □□李整雨識.”; 黃宙彫, <跋>, “歲□丙辰陽復下澣.”

59) 黃宙彫, <跋>, “往在甲午 ... 種松培梧, 岩下引溪設塘, 植莠投魚苗, 已經十數□.”

60) 黃宙彫, <跋>, “僅係舊規, 新築一亭于臺下.” 여기서 예전부터 지켜 오는 규칙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구규(舊規)’란 옛 정자의 제도·규모로 이해함이 적절해 보인다.

61) 黃留周, 1977, <鳳凰臺記>(鳳凰亭 所藏本), “我黃이 初入南原하야 ... 檀紀四千三百年丁巳三月中澣, 眞村十代孫長水黃留周 謹記.”

62) 安珍模, 1993, <梁海棹陳應圭彰善記>(鳳凰亭 所藏本), “臺下에 創建鳳凰亭하고 典同志數十人으로 結誼契하고 自耕畓四斗落을 貢獻하여 以圖雄詩策하니 ...”

63) 安珍模, <梁海棹陳應圭彰善記>, “順興安珍模識, 鳳凰亭契員一同.”

과 내용상 동의의에 해당하는 어휘로, 1976년의 정자 신축을 계기로 하여 봉황정을 모태로 하는 계모임이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정자에 딸린 “사래논[耕畚] 네 마지기[斗落]”로 시문집을 출간하기 위한 밑천으로 삼은 사실도 자못 눈길을 끈다. 왜냐하면 봉황정으로 대변되는 마을 공동의 휴식 공간에 자체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정황을 방증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영호남[嶺湖]의 여러 장보(章甫)[유생]들에게 시문(詩文)을 청하니, 거의 800여 수(首)에 이른지라, 표제(表題)를 『봉황대시집(鳳凰臺詩集)』으로” 칭한⁶⁴⁾ 시문집의 산과 역할을 수행하는 결과로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19세기를 전후로 한 시기와는 달리, 주민들의 관심사는 봉황대에서 정자로 초점이 완전히 이동한 상태임이 확인된다. 즉, 구비전승의 원천이었던 봉황대·명암이 특정한 문중들과 결속해서 전설의 시대를 영위하였다면, 이제 봉황정은 탈문중화라는 시대적 추이에 맞춰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향유하는 휴식 공간으로 탈태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편 『봉황대시집』의 경우, 1533년(중종 28)에 창축된 담양의 면양정이 송순(宋純, 1493~1582)의 주도적인 구상과 기획에 따라 시문학이 형성되었던 정황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⁶⁵⁾ 즉, 『봉황대시집』은 지난날 “선현(先賢)들의 시문(詩文)을 앞에 엮고, 또 다음의 것을 아래에 배치해서, 마침내 1책(冊)을 이룬” 독특한 편집 체제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 시대와 그 이후의 작품들을 모두 망라한 시문집을 완성했던바,⁶⁶⁾ 특히 19세기 이후 이곳 봉황정을 심방한 인사 및 마을 사람들의 문학적 정서를 아울러 반영했다는 점에서, 송순의 면양정에 비해서 훨씬 더 민중 친화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시문집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봉황정이라는 주민 공동의 문화적 공간에 기반한 “봉황정 계원 일동”이 발간한 『봉황대시집』은 이 지역의 고유한 문학적 기념비로 남게 되었다.

64) 黃留周, <鳳凰臺記>, “蒐輯諸賢의 考證文獻하고 論議於龍城詩社하고 乞詩文于嶺湖諸章甫하니 幾至八百餘首라 表題를 以鳳凰臺詩集이라 發刊成篇하고 岩臺下에 構築一棟三間하니 ...”

65) 이상원, 2015, 『송순의 면양정 구축과 <면양정가> 창작 시기』, 『한국시가문화연구』 35, 한국시가문화학회, 249쪽.

66) 李整雨, <鳳凰臺記>, “將付于手氏, 詩稿先賢詩文, 編於首, 又次於下, 遂成一冊.”

5. 맺음말

이상의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서 남원시 대산면 죽곡동에 소재한 봉황대·명암 전설과 봉황정을 대상으로 하여 연대별 전개에 따른 주요한 논점들을 고문헌 자료에 입각해서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봉황대와 그 부속물들의 경우, 선사시대의 암각화로 대변되는 청동기적 문명의 자취에서 시작하여 고려·조선 두 왕조기의 문벌적 문화를 경유한 끝에, 마침내 『봉황대시집』으로 표상되는 인문적 결실로 이어지는 상당히 다채로운 결을 간직한 유서 깊은 공간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봉황대와 그 부속물들은 고려 말엽에서 19세기 이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문벌적 권위가 부각된 문명사의 흐름에 따라 존재의 극점을 구가했던 사실이 주목된다. 물론 그 이면에는 명암 전설의 신비한 예언력에 힘입은 바가 컸다. 특히 경상우도의 함양에서 남원부의 죽곡동으로 이주를 단행한 율정 조종례 이래로, 봉황대 구비전승은 제학공과 일문의 성공적인 정착을 상징해 주는 아이콘으로 화했던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함안조씨 일문 외에도 죽곡동에 함께 거주했던 나주진씨·화순최씨 문중도 동시에 신비한 구비전승에 연루되었던 바, 이는 봉황대 구비전승이 전설과 팩트 간의 경계 지점에 위상했던 정황을 환기시켜 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로 봉황대의 명암 전설이 더는 재현되지 않았는데, 이는 제학공과 일문의 관직 진출이 뜸해진 흐름과도 궤를 같이 나란히 하고 있다. 대신에 봉황대 아래에 정자를 신축하고, 이 휴식 공간을 모태로 삼은 계모임의 주도적인 노력하에 『봉황대시집』을 발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마을 공동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봉황정의 현주소는 자유와 평등으로 표상되는 근대적 이념의 향토사적 산실 적의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참고문헌

한문원전자료

- 高在益 外, 연도 미상, 『鳳凰臺韻』(鳳凰亭 所藏本).
- 金麟厚, 1986, 『河西集』(한국문집총간 33),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金台鎭, 연도 미상, 『板上詩』(鳳凰亭 所藏本).
- 南原郡(朝鮮) 編, 1787, 『南原邑誌』(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필사본, 奎17401).
- 龍城誌編纂委(가칭), 『龍城誌』(하버드 옌칭도서관 소장본, 奎17499).
- 李福謙·黃璣, 연도 미상, 『板上詩』(鳳凰亭 所藏本).
- 李整雨, 1976, 『鳳凰臺記』(鳳凰亭 所藏本).
- 李中儀, 연도 미상, 『板上詩』(鳳凰亭 所藏本).
- 安珍模, 1993, 『梁海棹陳應圭彰善記』(鳳凰亭 所藏本).
- 趙煥國, 1845, 『鳳凰臺記』(鳳凰亭 所藏本).
- 趙希文, 연도 미상, 『鳳凰臺記』(『龍城誌』 收錄本).
- 咸安趙氏世譜編輯委員會(가칭), 1963, 『咸安趙氏世譜』, 함양: 咸陽教授亭活印.
- 黃留周, 1977, 『鳳凰臺記』(鳳凰亭 所藏本).
- 黃信龜, 1676, 『次鳴巖韻并序』(鳳凰亭 所藏本).
- 黃宙彤, 1976, 『跋』(鳳凰亭 所藏本).

단행본

- 金碩鎭, 1993, 『大山 周易講解(下經)』, 서울: 大有.
- 김종수 역주, 2021, 『5백 년 명문가의 도덕적 원천: 함안조씨언행록』,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출판부.
- 김종수, 2019, 『재실의 사회사』, 서울: 민속원.
- 한국매일 뉴스, 2013.10.01.
- 허경진, 2000, 『충남지역 누정문학 연구』, 서울: 태학사.

논문

- 권혁명, 2006, 「16세기 石川 林億齡과 息影亭 詩壇」, 『漢文學報』 15집, 217-258쪽.
- 金鍾秀, 2019, 「德谷 趙承肅과 『咸安趙氏言行錄』 연구」, 『동방문화와 사상』 6집, 35-68쪽.
- 이상원, 2015, 「송순의 면앙정 구축과 <면앙정가> 창작 시기」, 『한국시가문화연구』 35권, 247-278쪽.
- 전호태, 2017, 「한국의 검파형 암각화와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역사와 경계』 105집, 125-151쪽.

<Abstract>

The Icon of Haman Cho's Family's Settlement during the 16th ~ 18th Century

- Bonghwangdae · Bonghwangjeong in Namwon City -

Kim Jong-su*

Located in Jukgok(竹谷) Village, Daegok-ri(大谷里), Daesan-myeon(大山面), Namwon City(南原市), Bonghwangdae(鳳凰臺) attracted public attention as a time-honoured natural correlative especially for the legend of Crying Rock (鳴巖). From the late Goryeo(麗末) until before the 19th century, Bonghwangdae emerged as a magical place in Jukgok-dong(竹谷洞) for the mysterious power of the legend of crying rock to foresee the future.

Meanwhile, Bonghwangdae and crying rock entered upon a new phase of being connected with a certain family by Yuljeong(栗亭) Cho Jong-rye(趙從禮) and his descendants belonging to Haman Cho's Family(咸安趙氏) who moved from Hamyang(咸陽), Gyeongsangu-do(慶尙右道) to Jukgok-dong. In other words, crying rock changed into an icon that represents successful settlement of Jehakgong clan(提學公派) by foreknowing Cho Jong-rye and his descendants' passing the literary examination and classics and literary licentiate consecutively through its crying sound. In addition, number of rhyme-borrowing poems(次韻詩) responded to the <Myeongamun (鳴巖韻)> created by Sinjae(慎齋) Cho Rim(趙琳) expanded internal influence of the family within the area.

As Cho Jong-rye's descendants rarely entered government service after the 19th century, however, Bonghwangdae entered a new phase. Especially, established on the site, the reason for Bonghwangjeong(鳳凰亭) to become an object of attention has the same way with progress of extinction of the legend of Bonghwangdae. 『A Book of Bonghwangdae Poems (鳳凰臺詩集)』 pu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a community meeting(契) which was formed with Bonghwangjeong as a base in the 1970s was a sign that Bonghwangjeong changed completely to a culture space for residents beyond privatization of a family.

Key Words : Bonghwangdae, Bonghwangjeong, Crying rock, Haman Cho's Family
Jehakgong clan, Icon, A community meeting, Book of Bonghwangdae
poems

* Instructor at Semyung University